

한미, 우주 탐사 협력 손 잡았다

윤 외교장관·리퍼트 주한미대사
아시아 국가 최초 협정 체결
기상위성 활용·교육 등 전반 교류

미국이 아시아 국가 중에서는 최초로 한국과 우주 탐사분야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27일 미래창조과학부에 따르면 윤병세 외교부 장관과 마크 리퍼트 주한미대사는 이날 오전 서울시 중구 플라자호텔에서 열린 제2차 한미 우주협력회의에서 한미 우주협력협정에 서명했다.

한미는 이날 공동언론발표문을 통해 “평등·상호 이익을 기반으로 양국 간 공동 관심분야에서 평화적 목적의 외기권 탐사, 이용을 위한 향후 협력 조건을 규정하고 있다”며 “우주탐사 분야에서 정부간 협력의 법적인 틀을 수립해 장래 협력을 촉진하려는 의도”라고 설명했다.

한미 우주협력협정은 우주기술의 평화적 활용 목적에 따라 우주과학, 지구 관측, 지구과학, 항공, 우주 운영·탐사, 우주 교육, 우주기술, 안전 및 임무 보장 등 양국의 우주 협력 전반에 대한 법적·제도적 토대를 담고 있다.

양국의 협력범위와 이행기관, 이행약정 등을 규정한 16개 조항으로 이뤄졌다. 구체적으로 물품 및 기술 자료의 이전, 지적재산, 정보 공개, 인적 교류 및 시설 접근, 통관 및 물품의 이동 등 내용이 포함돼 있다.

협정에 따라 양국은 한국의 달 탐사와 미국의 화성탐사, 국제우주정거장 등 우주 탐사 계획을 공유하고 협력방안을 찾는다.

위성개발과 활용분야에서는 기상위성 자료 활용과 탑재체 개발, 해양위성·환경위성 정보 품질을 높이기 위한 방안 등을



27일 오전 서울시 중구 플라자호텔에서 열린 '한미 우주협력협정 서명식'에서 윤병세 외교장관(왼쪽)과 마크 리퍼트 주한미대사가 서명을 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모색한다. 우주환경 분야에서는 태양흑점 폭발에 따른 전파재난 등을 예방하기 위한 양국 공조 체계와 우주방사선의 인체영향 연구에 관한 연구인력 교류를 논의한다.

또 28일 한국항공우주연구원에서 열리는 회의에서는 달 탐사, 국제우주정거장 등에 대한 전문가 실무협회가 진행된다. 국내 연구진과 인문인을 대상으로 미국의 우주정책과 민간우주개발 방향을 소개하

는 '우주정책포럼'도 열린다. 29일 마지막 회의는 충북 진천 기상청 기상위성센터에서 열린다. 기상위성의 활용과 개발 협력 등에 관한 실무협회가 마련될 예정이다.

협력의 실행력 담보를 위한 실무기관은 한국항공우주연구원, 한국천문연구원, 한국과학기술원(KAIST), 기상청,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이다. 미국은 NASA와 해양대기청(NOAA), 지질조사국(USGS)

이 각각 지정됐다. 미래창조과학부 관계자는 “그동안 양국 기관 간에 산발적으로 진행되던 협력이 한미우주협력협정과 한미우주협력회의라는 틀 안에서 체계적이고 안정적으로 진행될 것”이라며 “이번 회의에서 논의한 사항이 양국의 우주개발에 실제 이익을 줄 수 있도록 지속해서 이행하고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박기용기자 pboxer@kwangju.co.kr



엄마와 '생활 속 에너지' 체험하기 한국여성과학기술인지원센터 호남제주사업단 과학캠프

한국여성과학기술인지원센터 호남제주권역사업단(단장 신말식)과 한국에너지공단 광주전남지역본부(본부장 김주완)는 지난 23일 한국에너지공단 녹색에너지체험관에서 '엄마와 함께하는 에너지 과학캠프'를 열었다. 광주지역 3학년 이상 초등학생 70명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한 이번 캠프는 기초 과학이론수업과 오감을 자극하는 과학실험으로 진행됐다. /박기용기자 pboxer@kwangju.co.kr



무선 인터넷 빠르게 연결 KT는 어디서나 빠른 무선 인터넷을 연결할 수 있는 신형 에그(모뎀) 'LTE 에그 플러스'를 프리미엄·보급형 단말기 2종으로 출시했다고 27일 밝혔다. <KT 제공>

광주과학관 오늘 최두환 포스코 ICT 사장 강연

국립광주과학관(관장 강신영)은 28일 오후 2시 광주과학관 1층 상상홀에서 '첨단 IT 기술의 진화,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를 주제로 필사이언스 강연을 개최한다.



이날 포스코 ICT 최두환 사장이 강연자로 나서 IT 기술 발전에 따른 기술적 전망, 세계 산업경제 등을 분석하고, 이 대처방안 등에 대해 강의를 할 예정이다. 또 가치를 판단하는 지능형 기기로 발전하는 IT 기술과 이를 뒷받침하는 시스템과 플랫폼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논의한다. 강연은 현장에서 누구나 무료로 입장 가능하며 자세한 내용은 국립광주과학관 홈페이지(www.sciencecenter.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박기용기자 pboxer@kwangju.co.kr

태양계 외곽 왜행성 '마케마케' 도는 위성 발견

태양계 외곽의 왜행성 마케마케(Makemake)가 위성을 거느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왜행성은 행성보다 작으면서도 자신의 모양을 유지할 수 있는 중력을 가진 천체를 말한다. 최근 태양계 행성의 지위를 잃은 명왕성도 왜행성이다. 지난 2005년 발견된 마케마케와 명왕성은 태양계에서 '왜행성 친구'인 셈이다. 사이언스 뉴스는 허블 우주망원경이 왜행성 마케마케 근처에서 위성 MK2를 발견했다고 지난 26일 밝혔다. 마케마케는 이스터섬 라파누이 신화에 나오는 창조신의 이름이다. 태양에서 45AU(천문단위·1AU는 지구와 태양 사이의 거리) 떨어진 곳에 있으며 지름이 1400km 정도인 것으로 알려졌다. 태양을 기준으로 명왕성보다 5AU 만큼 멀리 떨어져 있으며 표면은 메탄 얼음으로 덮여있고, 명왕성보다 조금 어둡다. MK2의 지름은 161km 정도로 석탄처럼 검은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명왕성은 카론과 닉스, 히드라, 케르베로스 등의 위성을 가지고 있다고 알려졌다. 하지만 마케마케의 위성을 찾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해왕성 궤도 바깥의 천체 밀집 지역인 '카이퍼 벨트'에 자리한 왜행성들이 실제로 위성을 갖고 있다는 것을 밝힌 셈이다. /연합뉴스

◀마케마케와 위성 MK2의 모습을 나타낸 상상도. <NASA>

모델 회사 사정상 급매 합니다

- 전남 구례군 산동면 관산리 732-1번지 지리산 온천지구 내 송원리조트 바로 앞
- 대지 573평, 건물 719평, 지하 1층 지상 4층, 객실 58개
- 1층 - 식당 / 세미나실 / 객실, 2~4층 - 객실
- 주위에 매매물건 없음
- 관광특구로 관광자금 유치 가능
- 게스트하우스, 수련원, 연수원 등등 적합
- 시세 / 감정가 - 15억
- 용 6억3천만원 있음, 법인체 인수 가능
- 매매 - 협의
- 리모델링 공사비 4억 별도
- 리모델링 후 연 4억원 순수익 가능
- 주인직매 H. 010-3605-5000

여수, 대지매매

- 전남 여주시 서교동 668-7, 8번지 서교동 로타리 우리은행 바로 옆
- 대지 260평 (120평 140평 분할 가능)
- 일반 상업지역 / 6차선 도로 접 / 현, 주차장
- 시세 / 감정가 - 23억원
- 용 12억 5천만원 있음 / 법인체 인수 가능
- 매매 - 협의
- 병원 / 사무 / 무인텔 / 상가 / 대형마트 등등 적합
- 1층 조립식 건축 후 상가 임대료 1,200만원 예상
- 주인직매 H. 010-8829-6876

숙박 (무인텔 / 콘도) 동업 / 투자 / 인수 하실분!

- 전남 화순군 도곡면 천암리 748번지 도곡온천지구 내 숙박시설
- 대지 2980평 건물 1055평 객실 52개
- 시세 / 감정가 - 60억
- 동업 / 투자 / 매매 - 협의
- 경매로 11억 2500만원 낙찰
- 용 10억원 있음, 법인체 인수 가능
- 현재 가장임차인 / 허위유치권 명도소송 진행중
- 명도 후 50억원 이상 매매 가능
- 소유자 H. 010-3605-5000

오천경매

- ▶ 비법 배우면서 투자하실분!
- ▶ 특수 물건과 NPL만 전문취급
- ▶ 교육비 1,200만원
- ▶ 예약 상담 필수

대표 최선규
H. 010-3605-5000